

김한용 연보 및 관련 자료

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이게 그저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이 내가 마음대로 설계를 하고, 내가 맘대로 쓰기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조금도 불편이 없어요. 어테가나 물 쓸 수 있지, 어테가나 불이 들어오고, 어테가나 스팀이 되어 있고, 거 시원하고. 또 2층 올라가게 되면 등나무 심은 지가 그러니까 집을 73년에 지었는데, 74년에 동화백화점에서 등나무를 요만한 걸 갖다 심었는데 지금 이 3층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더우면 홀랑 벗어요, 아무도 못 봅니다. 홀랑 벗고서 거기서 체조를 하고. 거기서 있으면 시-원 해요. '거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 도시의 중앙에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은 인간 김한용이다.' 혼자서 웃고, 혼자서 기분 좋아서 살고 있습니다. 히히히(웃음)

최: 오늘 장시간 동안, 상업 사진 활동에 관한 귀중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아닙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말을 잘했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깃거리가 아마 영원히 남겠죠. 요새 좋은 일이 많이 이루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점 많이 본떠지기를 기대합니다.

연 보	한 국 사	연 보	한 국 사
1924 3월 26일 평안남도 성천군 영천면 대평리 194에서 훈장인 부 김재길(金載杰), 모 이춘수(李春秀)의 5남으로 출생		1953 차녀 정옥 출생(부산시 전포동 721) 《대한사진예술연구회 회원전》 출품 《한국사진작가협회전》 출품	휴전 협정 조인 제2회 전국미전 개최
1931 모친과 함께 형이 사는 만주 봉천으로 이주	안창호, 조소앙 등 상해에 조선혁명당 창립	1954 일본 아사히 신문사 주최 《국제사진살롱》에 〈화염(火焰)과 흑연(黑煙)〉 출품하여 입선 정부 환도로 서울 마포구 대흥동 18-83으로 이주함 부산일본 사진기자 의원(依願) 사직함	
1932 부친 사망	이봉창, 윤봉길 의거	1955 장남 대수 출생 《제6회 한국사진작가협회전》 출품	광복10주년 기념 제1회 산업박람회
1934 그림에 취미를 갖기 시작	진단학회 조직	1956 미국공보문화원 주최 《한국가족전》 출품 《한국사진작가협회전》 출품 영화 〈구원의 정화〉 스틸 촬영	제3대 대통령선거 이승만 당선
1937 봉천성립(奉天省立) 봉천제일공업학교 인쇄과 입학 봉천성 모집의 방화 포스터 공모전에서 3등 입상		1957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중앙위원 피선 《한국사진작가협회전》 출품	어린이 현장 선포
1941 봉천성립 봉천제일공업학교 졸업	조선어학회 사건	1958 3녀 정신 출생 《한국사진작가협회전》에 〈설경〉 출품 《8.15 경축사진전》 출품	
1942 회화 도구 마련, 백계(白系) 러시아인으로부터 회화를 사사함	일제 한국인 학병 징병 실시	1959 국제보도 사진부장 의원 사직함 《호영회(好影會) 창립전》 출품 《한국사진작가협회전》 출품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김한용사진연구소 개설	
1944 일제 징병으로 소만(蘇滿) 국경인 호림(虎林)의 712부대에 입대	일본 항복 선언, 제2차 세계대전 종결, 광복 북위 38도선 경계로 미소양국의 한반도 분할점령 발표	1960 OB 맥주 캘린더 원고 제작(3, 4월호 촬영 끝나치고 4.19 혁명으로 중단) 육군본부 보도부가 발행하는 『대외육군화보』에 1년 계약으로 촬영, 중군사진작가증 받음 영화 〈청년 이승만〉 스틸 촬영 동아계약, 기아산업 광고 사진 의뢰 받음	제2공화국 수립 4·19 혁명 3·15 부정선거
1945 일본 본토인 시코쿠(四國) 고치시(高知市)에서 30리 떨어진 해변에 이동 군복무 중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음 9월 15일 712부대를 떠나 가족이 있는 만주 봉천으로 갔다가 11월에 평양으로 귀국함 고국 실정을 알기위해 평양에서 만포진까지 여행하면서 풍물 스케치와 물가를 조사함	조선문화단체총연맹 결성 이승만 남한 단독정부 수립 계획 발표 북한에서 북조선노동당 결성 조선신문협회 발족 군정장관 허가 없이 38선 월경 금지	1961 월간 『여원』 1962년 1월호 표지 촬영 의뢰 받음 비락우유 컬러광고 원고 촬영 《제12회 한국사진작가협회전 최종 회원전》 참가	5·16 군사정변 포고령 제5호로 모든 문화예술단체 해체
1946 2월 월남 중 38선에서 전재산을 압수당하여 회화 수업이 불가능해짐	전국문화단체총연맹 결성 UN총회 한국총선안 결의	1962 육군본부 『대외육군화보』 촬영 재계약 월간 『여원』 2월호부터 7월호까지 표지 촬영 박카스 광고 촬영 담당 《제1회 신인예술상》 입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47 5월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소재 국제보도연맹의 사진기자로 입사	제주도 4·3사건 5·10 총선거 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월 여수·순천반란사건	1963 육군본부 『대외육군화보』 촬영 재계약 OB맥주 캘린더 촬영 시작함, 64년 OB맥주 신문광고에 문인 촬영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50-2로 김한용사진연구소 이전	박정희, 제5대 대통령에 취임 제3공화국 수립
1948 봉천에서부터 친우였던 양세준의 누이인 양세천 양과 결혼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1회 향토문화사진공모전》에 〈산업용사(産業勇士)〉로 입선	한국전쟁 발발	1964 육군본부 『대외육군화보』 촬영 재계약 《YMCA회관 개관기념 초대전》 출품 《제13회 국전》에 〈비둘기〉로 입선	베트남 파병 6·3 사태
1950 장녀 정난 출생 한국전쟁 중 국제보도의 사진기자로 종군하여 평양을 넘어 영변까지 서북전선 취재(『국제보도』 11월호에 사진과 기사 게재)	전시(戰時)미술전람회 개최		
1951 아끼던 회화도구 팔아 카메라 구입, 제일 먼저 어머니 사진을 찍음	발체 개헌 제1차 한일회담 개최 국제 구락부 사건		
1952 6월 대한사진예술연구회와 부산예술사진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합동예술사진전》에 출품 11월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회원으로 활동 12월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 회원전》에 〈우후(雨后)의 포도(鋪道)〉 출품 부산일보에 사진기자로 입사			

연 보	한 국 사	연 보	한 국 사
<p>1965 한국창작사진가협회 《창립전》출품 육군본부 『대외육군화보』 촬영 재계약 『대외육군화보』 촬영한 공으로 육군 참모 총장 김용배 장군으로부터 감사장 받음 《제14회 국전》에 〈여체〉로 입선</p>	<p>한·일 협정</p>	<p>1975 조선일보사 주최 제12회 조일광고대상에 〈현대자동차 포니〉로 전자, 기기부문 본상 수상</p>	
<p>1966 육군본부 『대외육군화보』 촬영 재계약 조선일보사 주최 제3회 조일광고대상에 〈OB맥주〉광고로 대상 수상(합작: 이태영, 양승춘, 김한용) 《한국창작사진가협회전》출품</p>		<p>1976 조선일보사 주최 제13회 조일광고대상에 〈국제양모사무국〉로 섬유부문 본상 수상(합작 임헌혁, 박해중, 김한용) 《한국사진작가협회전》출품</p>	<p>3·1 민주국선언</p>
<p>1967 육군본부 『대외육군화보』 촬영 재계약 《한국미술협회 창립회원전》출품 《제2회 상공미술전람회》(현 산업디자인전람회)에 〈코리아〉광고로 특선(합작: 이효일, 김한용) 조선일보사 주최 제4회 조일광고대상 대상에 〈금성 FM라디오〉로 수상(합작: 부수연, 이동근, 김한용)</p>	<p>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p>	<p>1980 독일 쾰른 FOTOKINA 참석, 런던, 코펜하겐,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쾰른, 프랑크푸르트, 파리, 스위스, 로마 등 유럽시찰 《한국사진작가협회전》출품</p>	<p>한국방송공사(KBS) 컬러 텔레비전 첫 방영 광주 민주화 운동 언론기관 통폐합</p>
<p>1968 《한국미술협회전》출품 조선일보사 주최 제5회 조일광고대상에 〈오리엔트 손목시계〉로 준조일광고상 수상(합작: 이효일, 유충식, 김한용) 한국상업사진가협회 창립총무 동아일보사 주최 《동아국제살롱 공모전》 심사 《동아대학 국제미술전》 초대 출품 《종합미술전》에 〈누드〉 출품</p>	<p>1·21 사태, 국민교육헌장 선포</p>	<p>1981 한국마케팅협회 인솔하고 일본 광고계 시찰 동아계약 주식회사 강신호 회장으로부터 감사장 받음</p> <p>1982 《제1회 대한민국 사진전》 심사 동아일보사 사진동우회 명예회원으로 추천받음 라미화장품 광고 사진 촬영 차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 오키나와, 도쿄 등 출장 한국광고사진가협회 고문 추천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 대수 초청으로 미국여행</p>	<p>제5공화국 수립 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 개최 결정.</p> <p>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개최</p>
<p>1969 조선일보사 주최 제6회 조일광고대상에 〈오리엔트 손목시계〉로 대상 수상(합작: 이영희, 유충식)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특선(합작: 박재진, 김한용) 한국관광공사 주최 《관광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위촉</p>		<p>1983 《제2회 대한민국사진전》 초대작가 작품 출품</p> <p>1984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피선 《제3회 대한민국사진전》 심사위원장, 초대작가 출품 매일경제신문사 제정 광고인공로상 수상 『김한용 작품집』 출판 기념 및 《회갑기념 김한용사진전》 개최 (디자인 포장센터)</p>	<p>KAL기 피격 참사, 아웅산 사건 남북이산가족찾기</p>
<p>1970 일본 오사카 엑스포 '70 시찰 한국관광공사 주최 《관광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치안국 주최 《미술공모전》 심사위원 위촉 조선일보사 주최 제7회 조일광고상에 〈한국 나이롱〉으로 직물부문상 수상</p>	<p>새마을 운동 경부고속도로 개통</p>	<p>1985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운영자문위원 위촉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정사진작가 위촉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국제사진살롱》 심사</p>	<p>남북고향방문단 상호교류</p>
<p>1972 5월 모친 이춘수 사망 《한국상업사진가협회 창립전》 개최</p>	<p>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적십자 회담 10월 유신 제4공화국 수립</p>	<p>1986 서울시 주최 《제12회 서울발전상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위촉 서울시 주최 《국제사진살롱》 심사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공식기록 사진작가 위촉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역임</p>	<p>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p>
<p>1973 홍콩에서 열린 FAPA 총회 참석하고 마카오, 타이페이 시찰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52-3으로 김한용사진연구소 스튜디오 신축 이전 《제2회 한국상업사진가협회전》 개최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피선</p>	<p>6·23 평화통일선언</p>	<p>1987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편찬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88올림픽 공식 기록 사진 촬영단 사진작가 위촉</p>	<p>6월 민주항쟁 6·29선언</p>
<p>1974 《제3회 한국상업사진가협회전》 개최 한국방송사업단 주최 《제2회 한국사진대전》 심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p>		<p>1988 초대전 《김한용 누드작품》(영상사랑, 3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경축 한국동물사진전》 초대 출품</p>	<p>제24회 올림픽대회 개최</p>
		<p>1989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관리과정(1년) 수료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대한민국사진전람회》에 초대작가로 위촉</p>	
		<p>1992 한국광고대회 유공광고인 대통령 표창</p>	<p>한·중 수교</p>

연 보	한 국 사	김 한 용 의 글	일 간 지	
1993 고희 기념 《김한용 사진작품전》(서울갤러리) 개최 및 작품집 『얼』(호영) 출판	김영삼, 제14대 대통령에 취임 금융실명제 실시 대전 엑스포	김한용, 「상업사진과 인쇄」, 『인쇄계』(17호), 1972.5	「독도답사에 성공, 산악회 학술조사단 18일 귀경」, 『조선일보』, 1953.10.19	「제11회 광고인 대상 수상자-김한용」, 『매일경제신문』, 1984.5.10
1994 중구 문화회관 건립기념 《중구의 어제와 오늘, 김한용 사진전》 개최	김일성 사망 북·미 제네바 회담	김한용, 「다시 가고 싶은 촬영지-한라산」, 『영상』, 1979.8	홍종인, 「독도에 다녀와서(1)」, 『조선일보』, 1953.10.22	「김한용 사진작품전」, 『경향신문』, 1985.1.18
1996 사파(SAPPA) 사진전문교육원 고문 위촉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김한용, 「예술세계에 자만 없다」, 『예술계』(통권 1호), 1984.가을	홍종인, 「독도에 다녀와서(2)」, 『조선일보』, 1953.10.23	「김한용씨 사진작품집 출판기념회」, 『동아일보』, 1985.1.18
1999 김한용 사진집 『석굴암』(눈빛 출판사) 출간 제1회 중구문화예술상 미술부문 수상		김한용, 「(특집)예술의 책임 한계: 사진 김한용 -매력적인 영혼에의 분신」, 『예술계』(통권 6호), 1985.11	홍종인, 「독도에 다녀와서(3)」, 『조선일보』, 1953.10.26	「한국사진110 작가열전-김한용, 한용수」, 『문화일보』, 1998.4.23
2001 부인 양세천 사망		김한용, 「광범위해진 표현의 가능성」, 『예술계』(통권 10호), 1986.3	홍종인, 「독도에 다녀와서(4)」, 『조선일보』, 1953.10.27	고강훈, 「한국 누드 변천사 한눈에」, 『한국일보』, 2001.4.25
2002 4월 KBS 1TV <이것이 인생이다> 프로그램에 출연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한·칠 자유무역협정체결	김한용, 「한국의 참된 인간미를」, 『예술계』(통권 11호), 1986.4	「조일광고상 시상」, 『조선일보』, 1966.12.8	진동선, 「알몸의 참된 의미를 아는가」, 『한겨레』, 2001.5.8
2003 《김한용 작품전》(조선일보미술관, 3.26-4.4) 개최 및 『김한용 작품집』 출판 《다리를 도둑맞은 남자와 30개의 눈》(대림미술관, 8.9-9.7)에 출품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에 취임	김한용, 「예술시평-사진: 생동감 있는 전쟁의 공포」, 『예술계』(통권 12호), 1986.5	「조일광고상에 금성 FM라디오, 제4회 수상자 결정」, 『조선일보』, 1967.11.11	박광희, 「50, 60년대 그 시절 우리 모습」, 『한국일보』, 2002.11.19
2005 《광복60년, 사진60년》(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4.12-5.8)에 출품 《Fast Forward: Photographic Message From Korea》(독일 프랑크푸르트, 10.8-11.27)에 출품		김한용, 「새로 마련된 영상사랑」, 『예술계』(통권 13호), 1986.6	「높아진 인식, 세련된 질, 제4회 조일광고상 심사평」, 『조선일보』, 1967.11.21	신세미, 「50-60년대 민중모습 생생히」, 『문화일보』, 2002.11.23
2006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 명예의 전당》(김영섭화랑, 9.13-9.26)에 출품 『희망의 연대기』(눈빛 출판사) 출간		김한용, 「피서를 모르던 시절의 쉼터」, 『럭키 금성』(통권 120호)	「개성 있는 구도를, 5회 조일광고상을 뽐고 나서」, 『조선일보』, 1968.11.17	정재연, 「'신선화' 김한용씨 등 원로들 '리얼리즘' 사진展」, 『조선일보』, 2002.11.23
2007 《김한용과 이서의 이미지 충돌》(트렁크갤러리, 8.16-9.2)에 출품 《Elastic Taboos Within the Korean World of Contemporary Art》(오스트리아 빈 쿤스트할레, 2.23-6.10)에 출품 《광고문화페스티벌 특별전: 김한용의 광고사진 60년, 그리고 그 흔적들》(한국광고문화회관, 5.7-5.31) 개최		김한용, 「격세지감의 광고사진」, 『LG AD』(통권 58호), 1990.4	「조일광고상 시상, 어제 신문회관서」, 『조선일보』, 1968.12.3	허문명, 「사진작가 김한용의 테마- '석상/보물문양」, 『동아일보』, 2003.3.18
2008 《한국현대사진 60년-1948-2008》(국립현대미술관, 8.15-10.26)에 출품		김한용, 「광고전문인의 세계(vi) 한국 광고사진계의 초창기와 오늘」, 『다이아몬드에드』(통권 54호), 1992.1	「세련된 시각화, 제6회 조일광고상 심사를 마치고」, 『조선일보』, 1969.11.18	「광고사진 작가 김한용展」, 『조선일보』, 2003.3.26
2009 《희망의 연대기》(동강사진박물관, 1.13-3.8) 개최 《예술의 전당 기획전: 희망의 기억 Ⅱ》(한가람미술관, 3.6-3.29)에 출품		김한용, 「광고사진역사 30여 년, 그 눈부신 발전」, 『광고사진』(Vol.2), 1992.3	「조일광고상 시상, 본사 주최 어제 신문회관서」, 『조선일보』, 1969.12.2	김광일, 「같은 길-원로작가 김한용·홍익대 김대수 교수 부자」, 『조선일보』, 2004.2.2
		김한용, 「일선에서 말한다-광고사진가, 외길 인생 45년」, 『광고계 동향』(통권 19호), 1992.9	이명동, 「1회 상업사진전 평」, 『동아일보』, 1972.3.30	김동섭, 「99년전 '독도 수호신'은 심홍택 울릉군수」, 『조선일보』, 2005.3.9
		김한용, 「가난했던 시절, OB맥주광고」, 『광고사진』(Vol.17), 1996.5.15	「상업사진가협회서 신문회관서 회원전」, 『매일경제신문』, 1972.3.30	「52년 전 '다케시마 말뚝' 뽐고 '독도' 표석 세우다」, 『조선일보』, 2005.3.9
		김한용, 「평생을 카메라와 함께, 김한용」, 『한국인』(Vol.16 No.6), 1997	「최우수 광고주상 3개 선정, 조일광고상 대상 해당 작 없어」, 『조선일보』, 1976.10.20	정재연, 「광복 60주년 기념 '시대와 사람들' 사진전」, 『조선일보』, 2005.4.12
		김한용, 「광고인 수필-광고업계 IMF 시대 극복방안 및 다짐」, 『광고계 동향』(통권 84호), 1998.2	「수작 없는 평준화 신인 활기, 제13회 조일광고상 심사를 마치고」, 『조선일보』, 1976.10.22	허문명, 「렌즈로 본 한국 현대사 '시대와 사람들展' 내달 8일까지」, 『동아일보』, 2005.4.20
		김한용, 「사진가 김한용의 사진 인생 50년-광고사진의 개척자 김한용」, 『월간조선』, 2002.2	「김한용씨에게 들어보는 가을철 사진찍기」, 『매일경제신문』, 1981.10.13	윤민용, 「서울 국제사진페스티벌 '사진과 미술의 포용」, 『경향신문』, 2006.9.12
			「사진작가 김한용씨 22일 미국 사진계 시찰」, 『경향신문』, 1982.7.16	「'충무로의 사진가들' 전시회 18일부터」, 『조선일보』, 2006.9.14

\* 한국사 관련 연표는 『한국사26』(강만길 외, 한길사, 1995)를 참조하여 정리했다.

노형석, 「아십만만 큐레이터의 기획을 보라- '이상한 나침반' 전과 '이미지 충돌' 전」, 『한겨레』, 2007.8.30

이찬호, 「동강사진박물관 해방 이후 기록사진 등 40점 올 첫 전시」, 『중앙일보』, 2009.1.14

오석기, 「원로사진작가 김한용씨 개인전」, 『강원일보』, 2009.1.15

#### 주간지

신을진, 「한국 누드사진 흐름전」, 『주간동아』, 2001.5.10

이정훈, 「1953년 독도에서 '다케시마' 를 뿌리뽑다」, 『주간동아』, 2005.3.15

이동훈, 「1953년 독도 사진으로 화제 김한용 사진작가」, 『주간동아』, 2005.3.22

이정훈, 「독도에 흥순칠 동상 세워지나」, 『주간동아』, 2005.10.25

「향토문화사진전」, 『국제보도16』(vol.3, no.5), 1948.12.20

#### 월간지

편집부, 「상업사진작가 탐방기: 김한용」, 『포토그래피』(통권 48호), 1971.6

이명동, 「1회 상업사진전」, 『신동아』, 1972.5

이만재·이명동, 「자연을 결합하는 극기, 김한용 사진」, 『디자인』(9호), 1978.1

임범택, 「한국의 그래픽 디자인과 광고사진 上,中,下」, 『영상』, 1978.11-1979.1

이명동, 「광고사진가는 빼앗긴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영상』(5권 9호), 1979.9

최인진, 「한국의 사진가 10-상업사진의 시대를 연 김한용의 사진세계」, 『영상』(9권 10호), 1980.1

편집부, 「100호를 내기까지 영상을 빛낸 사람들 1: 임응식, 이경모, 정범태, 김한용」, 『영상』(19권 2호), 1984.2

편집부, 「투신 30년-김한용」, 『주간매경』(통권 250호), 1984.6

한정식(대담), 「원로에게 듣는 사단측면사9-김한용

선생께 듣는다」, 『월간사진』(통권 220호), 1985.11

한정식(대담), 「원로에게 듣는 사단측면사10-김한용 선생께 듣는다」, 『월간사진』(통권 221호), 1985.12

편집부, 「이달의 만남-상업사진의 선구자 김한용 원로와의 대화」, 『영상』(21권 3호), 1985.3

편집부, 「김한용 사진집 출판기념전시 작품 중에서」, 『영상』(21권 3호), 1985.3

한정식(대담), 「원로에게 듣는 사단측면사11-김한용 선생께 듣는다」, 『월간 사진』(통권 223호), 1986.2

편집부, 「예술가의 공간-사진작가 김한용」, 『실내장식』, 1988.7

김한용-이경모, 「사진계 원로대담-영상의광장 옹모자에게 바란다」, 『영상』(29권 1호), 1989.1

홍순태, 「광고전문인의 세계(vi) 포토그래퍼 한국 광고사진의 현황과 예술성」, 『다이아몬드에드』(통권 54호), 1992.1

이만재, 「한국 광고 인물사7- 기와 혼의 한평생 광고사진가 김한용」, 『광고정보』(통권 162호), 1994.9

박암중, 「프로정신으로 50년을 달려온 사진작가 김한용」, 『디자인』, 1997.1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잊혀져 가는 추억의 시간으로, 김한용」, 『광고사진』(Vol.21), 1998.3

편집부, 「되새겨보는 6.25, 김한용」, 『월간사진』(통권 371호), 1998.6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2), 1998.7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3), 1999.1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4), 1999.4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5), 1999.7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광고사진』(Vol.26), 1999.12

박명옥, 「사진과 사람 7. 충무로의 영원한 지킴이

김한용」, 『한국사진』(통권 230호), 1999.9

육명심, 「한국의 사진가 2- 육명심이 만난 한국의 사진가 광고사진가 김한용」, 『사진예술』, 2002.2

편집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성-김한용, 이서, 한금현」, 『포토넷』(통권 101호), 2007.1

편집부, 「이미지 링크-김한용」, 『아트인컬처』, 2007.2

김동욱, 「People Now-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세월을 이겨냅니다」, 『광고정보』(통권 312호), 2007.3

진현옥, 「광고사진 1세대 김한용, 홍익대 사진교수 김대수 부자」, 『사진예술』, 2008.4

이정훈, 「1953년 독도를 최초로 측량한 박병주 선생」, 『신동아』(통권 592호), 2009.1.

조경국, 「Culture-사진가의 책가도」, 『포토넷』(통권 125호), 2009.10

#### 작품집, 도록

『김한용 작품집』, 월간사진출판소, 1984

『얼』, 호영, 1993

『일상, 기억, 역사: 광고사진-김한용』, 광주비엔날레, 1997

『석굴암: 김한용 사진집』, 눈빛, 1999

『한국사진과 리얼리즘: 1950-60년대의 사진가들』, 눈빛, 2002

『김한용 작품집』, 눈빛, 2003

『Fast Forward』, Kogaf & Fotografie Forum International, 2005

『희망의 연대기: 카메라로 바라본 1950-1960년대』, 눈빛, 2006

『Elastic Taboos(Within the Korean World of Contemporary Art)』, Kunst Halle Wien, 2007

『한국현대사진 60년』, 국립현대미술관, 2008

#### 단행본

「김한용 사진연구소」, 『한국광고사진연감1』, 안국문화, 1991

신인섭, 『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

박평중, 『한국사진의 선구자들』, 눈빛, 2007

#### 학술지, 학위논문

유경선, 『광고사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3

최윤정, 『누드사진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한 고찰-한국누드사진을 중심으로』, 경성대 산업디자인학과, 2001

최인진, 「해방 초기의 사진잡지 연구」, 『AURA 10』, 한국사진학회, 2003

안수영, 『1980년대 후반의 한국 사진 잡지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2005

## 매력적인 영혼에의 분신\*

김 한 용

지난 여름 우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무더위 속에서, 그 열기만큼이나 후끈한 민주예술의 파동을 겪었다. 이른바 민중문학이니 민중예술이니 하는 우리에게 비교적 생경한 용어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시켰고, 결국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예술이 추구하고 수용해야 할 명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의 입김이 아직도 채 식지 않은 때에 예술의 책임과 한계에 대해 논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임에 틀림없으나 사진작가라는 직함으로 예술과의 한 고리를 맺고 있는 사유를 들어 몇 가지 모자란 생각과 참고한 문헌적 내용을 기술코자 한다.

내 생각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민중예술 내지 참여예술에 대한 어떤 시대적 이념적인 조명을 하기에 앞서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숙명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누군가 모든 예술작품을 그 시대의 아들이며 때로는 우리 감정의 어머니임을 주장한 것이 생각난다. 어느 시대의 문화든지 그 나름대로의 예술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독창성을 갖고 있다. 예술이 지향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가령 예술가의 정신이 어떤 독창적인 작업에 몰두해 있을 경우, 그 정신의 외침은 무엇인가.

일찍이 슈만은 ‘인간의 마음 속 어두운 곳에 거울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예술가의 임무’ 라고 말했다. 예술가란 자신의 능력과 창조력과 감성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계를 해결한다. 그러한 예술가의 속성을 수용하고 있는 이 사회는 예술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함께 조명하려는 야누스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예술은 그 이미지를 통해 어떤 특정 집단과 이념에 대한 호의를 구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이 비록 그러한 목적에 이용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예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을 넘어 설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예술가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교리와 신념, 그리고 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예술 그 고유의 정신적 세계는 불변한 것이다.

예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으며 명확하고도 훌륭한 수많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격은 예술적 활동이 비록 종교적, 또는 정치적 요청에 의해 규정지어지고 방향 지어진 사회적 활동의 이름처럼 보일 때에도 반드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예술이 아무런 외적인 개입 없이 자신에 의해 스스로 규정지어질 때 ‘시는 시’, ‘음악은 음악’, ‘사진은 사진’ 이라고 말하여질 때 그것들은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1) 『예술계』, 제2권 4호, 1985.11에 실린 글을 재수록하였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민중예술은 쉽게 말해 예술이 갖고 있는 미적, 본연의 탐구를 외면하고 사회현상을 예술이라는 장르에 담아 나가는 소위 도식적인 예술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활동은 자칫 예술성이 결여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이와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컨대 70년대라는 근대화의 작업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산업화 사회의 지향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새로운 계층간의 갈등, 그리고 편중적인 부의 축적에 따른 자본주의 가치관의 혼란들이 이러한 충동적 예술현상을 급속도로 진전시키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반평생을 사진작업이란 장르 속에 몰입해 왔을 뿐, 나는 특별히 예술의 가치론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 보거나 예술의 사회적 참여를 비판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진은 내 생의 전부를 담은 이력이며 내 영혼과 생활의 땀방울들이 맺혀 있는 스크린과 같은 것이다. 나는 카메라 파인더 속에 비춰지는 무수한 피조물들... 나무, 꽃, 새, 산, 여인이라든지 무심한 바위나 강물에 이르기까지 나는 몰래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해 내 생을 불태웠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소 러스킨이 말한 ‘위대한 예술이란 예술적 재능에 의한 순수한 영혼의 표현’ 임을 굳게 믿고 있을 따름이다.

한 나라 한 시대의 예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든 예술인들이 한 번쯤은 고심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 선동적으로 표현되어서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회적 이슈를 문제삼고 있는 참여예술 혹은 민중예술이 과연 얼마나 예술적 의욕과 이념을 재구성하는 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 싶다.

참여예술이란 개인이나 몇몇 소집단의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민족의 공동체적 운명을 결정짓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창조 의 소산이요, 새로움의 모색이다. 예술에 있어서 새로움을 기대하는 것은 소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술적인 새로움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청량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술 속에서 무언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려고 애쓴다. 답답한 생활 속에서 예술 만이라도 다양하고 풍부한 참신성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부단한 요구라고 외면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새로움의 모색이 파괴적인 기능이나 배타적인 기능만을 앞세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

문화예술이 가진 문화성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 못지 않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우리의 참여예술이 이 사회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예술의 사회나 집단의 도구에서 과감히 탈퇴하여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세련미를 함께 배양해야 한다. 예술의 선전 선동성은 곧 이념의 전달을 전제한 것이므로 곧 예술을 도구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새로움을 모색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는 전위예술이라 일컫는다. 전위예술이란 용어는 물론 예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서양예술의 특정한 발전적 양상

의 한 단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서양의 전위예술은 허무주의, 도착, 파괴, 부조리 등을 연계시키는 작품적 특성을 갖고, 음악, 미술, 사진을 비롯하여 무대예술 전반에 걸쳐 점차 일반대중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위예술은 적어도 최근까지는 사회적 관련이 없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것이 전위성이 없는 전위예술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서양의 전위미술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는 미군들에 의해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해방 후 수입된 각종 잡지, 미술잡지 등을 통해서 소개되고 6.25 이후의 허무주의적 분위기와 결맞음으로써 하나의 중요한 세력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전위예술 운동은 6, 70년대까지 계속되어 70년대 후반에 와서야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위예술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매우 활발한 소그룹운동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예술운동으로 정착되어 민중적 삶을 일깨우는 각성제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민중예술의 싹을 전위예술의 접근 속에서 찾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전위예술과 민중예술의 교합을 단순히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전위예술의 충동과 민중예술의 충동이 같은 것이 될 수 없을진대, 우리는 두 예술적 형상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두 가지 다 경직된 문화양식 내지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을 그 동기로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교류의 연계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예술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대체로 전위예술이든 민중예술이든 새로운 에너지가 형성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보다 생동하는 창조적인 예술의 작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술의 건전한 생명력은 살아 움직이는 충만감이다. 예술에서 새로운 것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 늘상 새로운 것의 창조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움의 추구하고 방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예술의 향기를 좀먹는 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 문화예술의 도식성과 경직성을 타파하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예술의 기능을 발견하여야 한다.

위대한 예술은 굳은 것, 막힌 것, 거짓된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고, 그것의 참된 생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예술가로서의 권한과 책임의 관계가 그어지는 것이다. 예술은 인생을 정신적으로 활기 있게 하고 고무하기 위해서 있지, 인생에 대해서 니힐리즘의 차가운 악마를 휘두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재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예술 본래의 사명을 잘 표현하고 있는 박종화 선생의 다정불심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란 활성, 곧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것이고 예술이란 곧 정과 무 속에서 억만 가지 동태를 껴안는 거야. 정치의 움직이는 성질 속에는 참되고 속되고 어질고 감사하고 착하고 악한 점이 모두 다 섞여 있던 말을. 그러나 예술이란 한 점의 속된 것과 말을 합하므로 해서 예술과 정치는 서로 정반대 되는 입장에서 서 있는 거요, 이런 까닭에 정치는 언제든지 정치요, 예술은 언제든지 예

술이란 말은 만일 예술가나 정치가가 된다면 그것은 벌써 예술을 배반해 버린 사람이니 순전한 예술가는 아니란 말요.”

이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에서 예술이 가야 할 길은 험하고 먼 길임에 틀림없으나 예술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순수, 그로 인해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기쁨과 창조적 희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예술인들이 묵묵히 외길을 걸을 것이다. 위대한 예술이란 예술적 재능에 의한 순수한 영혼의 표현임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나도 생의 여력을 사진이라 매력적인 영혼의 분신과 함께 불태울 것이다.



